

배중헌

깊은 사유와 서정적 감성으로 평범한 것에서 예술적 가치를 발견하여 시각매체로 표현하는 배중헌(b.1969)은 형식과 소재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만들어가는 작가이다. 그는 가천대학교와 동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경북대학교에서 미술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갤러리 소소의 《무행無行》까지 총 17회의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Animamix Biennale(상하이), 부산 비엔날레(부산), 창원조각비엔날레(창원),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목포), 대구사진비엔날레(대구) 등을 비롯해 국립현대미술관, 성곡미술관, 아르코미술관, 샌프란시스코 SFAC Galleries, 상하이 ArtN space, 뉴욕 DUMBO Art Center 등 국내외에서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예술적 사유를 정리한 작가노트와 작업기록, 도록을 수록하여 자신의 예술세계를 집대성한 방대한 양의 저서 『배중헌 작업집서』(2015, 서울:모노클)를 출간한 바 있다. 2014년 고암미술상을 수상하였으며, 아르코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2021년 스코틀랜드의 글렌티딕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에 이어 2023년 국립현대미술관 창동레지던스에서 입주작가로 활동하면서 새로운 공간과 생활에서 오는 영감을 통해 작업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개인전 《무행無行》(2023, 갤러리 소소) 전시 전경



창동표착일록倉洞漂着—錄 #0001-No.2_콘크리트 균열과 도시 먼지
A note of drifting ashore on Changdong, #0001-No.2_Concrete cracks and city dust
2023, oil on birch plywood panel, 45x150cm



무행無行_시멘트 벽면의 자동차 타이어 마찰흔, 자동차가 긁고 지나간 자국, 시멘트 거푸집흔
Trying Nothing_Car tire friction marks on the concrete wall, car scratch marks, cement form marks
2023, oil on birch plywood panel, 112.1x162.2cm